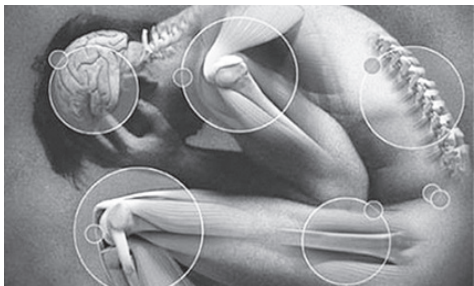


■ 건강 칼럼 - 뼈를 살리니 건강이 보인다

몸속에 무언가 스멀스멀 기어 다녀요 뱃속의 냉기를 만드는 변독을 없애줘야

#1. 60대 여성이 본 연구소를 들러 뱃속에 뭔가 꿈틀대며 돌아다니는 것을 잡을 수 없냐고 물었다. 늘 신물이 입으로 올라와 위산으로 고생도 하고 있었다. 꿈틀대는 것을 잡으려고 '기 치료' 등 별의 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없어지지 않았다. 거의 1년여 동안 아랫배를 초대형 침봉으로 눌러 뱃속의 풍의 기운을 깨어 부수는데 성공을 하였다.



▲ 몸에 뭔가 기어 다니는 느낌이 있다면 뼈 속에 산화철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사진은 미라클터치로 모자라는 인체전기를 보충해 독소를 빼 준 모습. 피부로 빨갛게 빠져 나온다.

치가 갈라져 있는 분의 경우 더 뼈의 상태가 좋지 않다. 발바닥과 온몸의 피부에 각질이 생겨 생선비늘처럼 벗겨지게 되고 어떤 분은 가려움증과 알레르기에 시달리게 된다.

■ 전기 보충해줘야 탈출 가능

많은 분들이 뼈에서 발전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발전을 하는 곳이 바로 발뒤꿈치이다. 복숭아 뼈가 축 역할을 담당해서 발이 높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망가지면 발 전기가 생성이 안 돼 골반에 전달을 못해 온몸이 망가지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뇨병 환자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발가락을 자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뼈의 충을 없앨 수 있나? 무엇보다 항문 속에 생긴 대변독이 더 이상 온몸의 뼈에 추가로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항문 삽입형을 통해 괄약근을 조이는 작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후 골반과 등관 뼈를 침봉형과 깔판형으로 살살이 훑어가며 산화철을 없애 줘야 한다. 심하게 아플수록 병의 핵심이 바로 그 속에 들어 있다. 어떤 부분은 4시간 이상 눌러줘야 그 뿌리가 잡히기도 한다.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좌, 우 갈비뼈만 제대로 청소해주면 해방이 가능하다. 엄청난 독이 악취로 빠지면서 숨쉬기도 쉬워진다. 악성 심장병은 명치까지 다스려줘야 한다.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으로 고생하던 상기의 여성은 매일 허리벨트형을 착용해 에너지가 등 뒤에서 앞으로 흘러주게 해주고 펜타곤형을 배꼽에 맞춰 앞쪽 장에 끼어 있는 변독을 매일 몰아냈다. 아울러 침봉형으로 위장과 대장 부위를 집중적으로 눌러 변독이 대, 소변으로 잘 빠져 나가게 도와 줬다. 또 사타구니 부위와 치골을 눌러주니 마치 시체가 썩은 냄새처럼 역한 냄새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독소가 빠져 나가니 서서히 몸이 따뜻해져 오고 손과 발도 점점 뜨거워져가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 것이다.

평소 뼈를 잘 다스려주면 상기의 병뿐만 아니라 위산역류, 불면증, 이명, 어지럼증, 편두통, 치질 등 고질병에서 쉽게 해방이 된다.

◆ 미라클터치 뼈과학연구소

▶ 풀러턴: (213) 255-1410

653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 엘에이: (213) 675-6877

3544 W. Olympic Blvd. #212, LA, CA 90019

■ 건강

녹차·당근, 치매 개선 효과 있다

녹차와 당근에 들어 있는 성분이 치매에 따른 기억력 손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남캘리포니아 의과대학 질카 신경유전학연구소는 최근 녹차잎에 들어있는 항산화물질 EGCG와 당근에 들어있는 페룰산(FA, ferulic acid)이 치매에 걸린 쥐의 기억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으로 치매증상을 보이는 쥐 32마리를 4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EGCG와 FA, EGCG 단독, FA 단독, 가짜약을 3개월 동안 투약했다.

연구팀은 실험 전후로 치매환자 인지능력 평가에 쓰이는 검사와 유사한 테스트를 쥐들을 상대로 실시했다. 실험 전 테스트에서 치매 쥐들은 건강한 쥐들보다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GCG와 FA를 3개월 동안 투약받은 쥐 그룹은 테스트 결과 사고력과 작업기억이 완전히 회복됐다. 연구진은 EGCG와 FA가 뇌 신경세포의 특정 단백질이 더 작은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로 분해되는 것을 차단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 신경세포 표면에 분포한 단백질로, 이들이 서로 뭉쳐 덩어리(plaque)가 형성되면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GCG와 FA를 투약받은 쥐들은 뇌 신경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 역시 치매 환자들의 전형적인 병리 현상이다.

EGCG는 녹차잎 추출물인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룰산은 당근 외에 토마토, 쌀, 밀, 귀리 등에도 들어있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